

그 수영장 탈의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아비뇽의 여자들》 펴낸 이청해씨

중견작가 이청해씨가 여성의 정체성을 묻는 신작장편을 펴냈다. 작가는 수영장을 무대로 한국 여성들의 황폐하고 권태로운 삶을 '벌거벗은 언어'로 해부한다. 20대 초반에서 50대까지 다섯 여인들이 펼쳐지는 수다로 가득한 이 소설은 '한국 사회에서 여자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수영장 탈의실에서 나신의 여자들이 모여 수다를 떠다. 게다가 연령층은 20대 초반에서 50대까지 다양하다. 과연 이들 사이에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까. 탈의실 커튼을 살짝 들추고 그 대화를 엿들어 옮겨 적는다면 분명 한편의 흥미로운 소설이 탄생하리라. 이청해씨(53)가 펴낸 《아비뇽의 여자들》(이름)은 한 수영장 탈의실에서 오고 가는 '적나라한 이야기'를 가감없이 담아낸 소설이다.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평균적인 삶을 다섯 여인들이 쏟아내는 '벌거벗은 언어'로 증언하고 있는 이 작품은 피카소의 동명 그림에서 제목을 빌려왔다.



이청해씨

이름/A5신/296면/8000원

“여성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다” “처음에는 두명의 중년 여인을 주인공으로 해서 여성의 정체성을 묻는 내용의 소설을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날 피카소의 <아비뇽의 여자들>을 보고 나서 한국 여성들의 패턴화된 일생을 한번 훑어보고 싶은 욕심이 들더라고요. 피카소의 그림 역시 창녀들의 황량하고 무자비한 삶을 형상화한 작품이죠. 한국여성의 삶도 길거리로 내몰린 '아비뇽의 여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지방전문대에 진학했지만 딸의 사생활에 마음을 놓지 못하는 부모에 이끌려 집에서 거의 갇혀 지내다시피 하는 20대 초반의 예회와 어릴 적 부모와의 불화로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지닌 채 살아가고 있는 20대 후반의 미조, 그리고 아이를 못 가지는 데서 생겨난 정신적 공허를 물질적 향락으로 채우려는 30대 중반의 보인, 남편의

외도로 심한 상처를 받고 있는 40대 후반의 화서, 그리고 폐경기에 접어들어 극심한 정신적 혼란을 겪고 있는 50대 초반의 두자. 이들 다섯 인물은 성적으로 여성이라는 공통점을 빼면 저마다 놓여 있는 상황이 각기 다르다. 하지만 이들이 보여주는 제각각의 삶은 우리 사회의 여성들이 성장하거나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부딪치는 삶의 각 단계를 포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입니다. 초경 이후 결혼하면 남편에게 인계되고 자식을 낳고 육아와 아이들 교육에 매달리다 보면 어느덧 폐경기가 닥치죠. 이로써 여성의 삶은 마감되는 거죠. 여자의 성은 충격과 수난의 연속입니다.”

두자를 비롯한 다섯명의 여자들은 어느날 한 수영 강습소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다. 저마다의

굴레에 매인 삶을 사는 이들이 서로 간에 소통하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공간이 다른 아닌 수영장 탈의실이다. 이곳에서 이들은 서로의 벌거벗은 몸과 마음에 새겨진 상처를 보게 되고 아픔에 공감하게 된다.

‘그녀’들이 만들어내는 ‘유쾌한 결말’

“수영장 탈의실은 옷을 벗고 맨몸으로 서로를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여성의 육체는 가식을 벗고 정직해집니다. 마치 옛날 여성들이 온갖 정보를 교환하던 빨래터 내지는 우물가와 같죠.”

이 소설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비애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어조는 결코 공격적이거나 과격하지 않다. 오히려 등장인물 모두는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남성 혹은 사회를 삶의 한 부분으로 의연하게 받아들인다.

수영 초급반 졸업 축하 장면에서 미조가 결혼을 선언하고 모두가 축하해주는 결말부분은 읽는이를 한껏 유쾌하게 만든다.

“결혼제도와 억압적인 가부장제 사회에 대한 여성의 저항 방식이 반드시 외도나 이혼의 형식만 있는 것은 아니죠. 저는 어설픈 극복이나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지 않았습시다. 다만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고자 했을 뿐입니다. 해답은 독자들 스스로 찾아내야죠.”

이씨는 43세의 나이로 등단한 늦깎이 작가다. 등단 이후 지금까지 모두 7권의 장편소설과 소설집을 내는 동안 단아하고 군더더기 없는 문체로 문단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의 작가 이력 10년을 결산하는 이번 소설은 한층 원숙해지고 웅숭깊어진 그의 필력을 느끼게 해준다. 이씨는 이번 소설을 반환점으로 소설 쓰기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참이다.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1편의 장편소설과 4~5편의 단편을 쓸 것이라고 말하는 그의 머리 속에는 이미 장편소설 두편의 밑그림이 그려져 있다. - 최갑수 기자